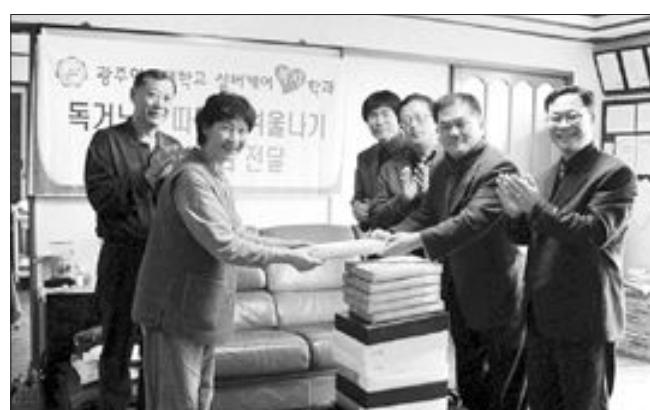


광주여대 지역 독거노인에 내의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실버케어학과는 최근 교수와 학생들이 마련한 성금으로 광산구 지역 독거 노인들을 찾아 내의를 전달했다.

곡성군 생활개선회 수의금 희망나눔에 기탁



곡성군 생활개선회(회장 이미숙)는 최근 지난해 추진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의금 50만원을 희망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나주 성북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쌀' 전달



나주시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경인년 새해를 맞아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250여만원으로 '사랑의 쌀' 35포대를 구입해 관내 불우이웃 가구에 전달했다.

구례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구례군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정숙)는 최근 관내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축

▲김점순씨 막내 이명건군 조성현·강선향씨 차녀 하양양=9일(토) 오후 1시50분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노기주·송영실씨 장남 성현군 정형석·박정선씨 차녀 효미양=9일(토) 낮 12시10분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박창주·김종순씨 장남 승용군 위승두(조선대 교수)·최경희씨 장녀 찬우양=9일(토) 오후 3시 전주 리베라호텔 1층(백제홀)

▲강성운·김선숙씨 차남 대우군 조범현(KIA 타이거즈 감독)·성상희씨 장녀 수연양=9일(토) 오후 1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컵 크리스탈볼룸 3층.

▲여인수·강성엽씨 차남 광희(전 대병원 외과)군 심태식(전 곡성군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로 방송 해설 화면해설제작단

“앞 뜻보는 장애우에 ‘마음의 눈’ 열어주고 싶다”

일반인들은 영상을 ‘눈’으로 본다. 이에 반해 시각장애인은 영상을 어떻게 볼까? 바로 ‘귀’로 영상을 본다. 화면에 대한 해설을 귀로 들으면서 영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을 해설해주는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등은 드물다. 방송 90% 이상을 해설하도 록 법으로 의무화시키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방송만 화면해설을 해준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해주는 여성들이 광주 최초로 탄생했다. 김경주(40)·채선영(26)씨가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종합녹음실에서 지난 8월부터 화면해설제작을 하고 있다.

“항상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영상을 해설하도록 노력해요. 저희가 눈으로 보고 해설하는 게 시각

장애인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답니다.”

화면해설제작단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에서 전문적으로 육성해주는 기관도 없다.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이경혜 부산점자도서관장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제작’ 특강을 들은 후 화면해설제작단이 되기로 결심했다. 광주에는 육성기관이 없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설한 ‘화면해설제작’ 강좌를 4개월간 들으며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을 마친 후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은 김선아 감독의 흑백애니메이션 ‘외출’. 11분짜리 작품을 화면해설제작으로 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첫 작업인데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토

론하고 원고 작성하는 데만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해설을 할 때 객관적이되 너무 주관적이지 않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지난번 작품에서는 한 장면에 지나치게 많은 해설을 했었는데 한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며 면박을 들기도 했어요. 그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살불리 판단해 해설을 한 뒷에 겪은 오류죠.”

6개월간 제작단이 제작한 작품은 노동주 감독의 ‘한나의 하루’·‘당신이고 응주하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다’ 등 모두 4편. 일이 의숙해 지면서 점점 작품의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다큐멘터리나 독립영화가 아닌 지역방송이나 상업영화에도 도전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지역 내에서 아직 화면해설 방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저작권문제도 얹혀 있어 많은 작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채선영씨는 “지역 방송국에서 화면



광주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제작단원 김경주(오른쪽)·채선영씨가 7일 오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녹음실에서 편집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설방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해 실컷 웃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최신 개봉 영화를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MBC ‘무한도전’ F1 그랑프리 도전

MBC ‘무한도전’ 팀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 도전한다.

MBC 관계자는 7일 “‘무한도전’ 제작진과 출연진이 말레이시아 세팡 국제서킷에서 열리는 ‘한국인 F1 드라이버 선발전’ 관람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출국했다”고 말했다.

‘무한도전’ 팀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의 운영 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5~7일 세팡 국제서킷을 빌려 선발전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을 찍을 예정이다. 귀국 후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서킷



에서 F1 그랑프리 도전을 위한 연습에 돌입한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은 연간 누적관객이 300만 명을 넘고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5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대규모 이벤트다.

국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올해 10월 영암군에서 열리며 10월 22일 연습 레이스와 23일 예선을 거쳐 24일 결선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병현 기아차 럭셔리 세단 K7 홍보대사에

영화배우 이병현이 기아차 준대형 럭셔리 세단 ‘K7’ 홍보대사에 선정됐다.

기아차는 7일 “한류스타를 넘어 서 할리우드 진출에 성공,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난 이병



현씨가 최고의 성능과 세련된 스타일을 갖춘 K7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현이 태어나는 K7은 스노 화이트 펄 컬러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최고급 트림 VG 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모델이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죽음이 이별 아니라는 사실 배울때가 됐다”

암 투병 최인호씨 에세이집 ‘인연’ 펴내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때가 되었으며, 수많은 이별 연습을 통해 나 자신도 존 던의 시처럼 내 영혼에게 조용히 ‘이제 그만 떠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을 배울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에게 가만히 자고 속삭이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14쪽)

암 투병 중인 소설가 최인호(64)씨가 신작 에세이집 〈인연〉(랜덤하우스)을 펴냈다. 에세이 곳곳에 투병생활을 하며 죽음과 인생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펼쳐져 있다.

최씨는 재작년 6월 침샘암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난해 3월부터 월간 ‘샘터’에 소설 〈가족〉 연재를 재개했다. 그는 이번 에세이집 집필을 끝내고 병세가 악화돼 지난해 12월 말 입원했다가 이달 2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에 수록된 마흔세 편의 글에서 최씨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소중한 인연들과의 애정어린 추억을 되새기며 인연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그는 “내가 쓴 글이 세상에 오래 남아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막막한 백지와의 인연을 이어갈 것이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누워 영원히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이 인연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쓴 보잘 것 없는 글들이 이 가난한 세상에 작은 위로의 눈발이 될 수 있도록, 그 누군가의 헬벗은 이불 속 한 점 온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는 저 눈 내린 백지 위를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미 대학과 MOU 체결 방미



김윤수 전남대 총장이 미국 컬리포니아주립대·유타주립대와 MOU 체결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8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주승용(국회의원)씨 ▲양형일(전 국회의원)씨 ▲전갑길(광산구청장)씨 ▲김영동(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씨 ▲한수은(보해양조 홍보실 팀장)씨

호. 062-227-4000

▲소중숙씨 별세 상현·형식·생희·화자·주자·애란씨 부친상=발인 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정현숙씨 별세 박영걸(전남대 의대 교수·장우·방자(약사)·복희(자자초교)·옥희·순희(약사)씨 모친상) 입경수·윤경근(내과 원장)씨 부친상=발인 9일(토) 무등장례예식장 203호. 062-515-4488.

▲하공석씨 별세 태수·태숙·태현씨 부친상=발인 9일(토) 무등장례예식장 203호. 062-227-4000.

▲정홍신씨 별세 원대·진안씨 부친상=발인 8일(금) 학동 금호장례예식장 301호. 062-227-4000.

▲윤길남씨 별세 이정주·옹전·옥남·달막·용자·균자씨 모친상=발인 9일(토) 무등장례예식장. 062-515-4488.

부음

부음